

# 바이오·반도체 업종 등 추가 등판 NXT, 오늘부터 거래종목 110개로

넥스트레이드, 총 100개종목 추가  
오투기·농심·이마트·GS리테일 등  
유가증권시장 식품·생필품주 선풍  
씨젠·메디톡스 등 바이오도 눈길

출·퇴근길 '동학개미'들의 손이 더  
바빠질 전망이다. 17일부터 대체거래  
소 넥스트레이드(NXT)의 거래 종목  
이 기존 10개에서 110개로 늘어난다.

16일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NXT  
2단계 거래 확대에 따라 17일부터 코스  
피 50개, 코스닥 50개 종목이 새롭게 거  
래된다.

경기방어주인 식품·유통주와 성장  
주인 바이오·반도체 업종이 대거 포함  
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오투기, 농심,  
CJ제일제당, 매일유업 등 식품주와 이  
마트,GS리테일 등 생필품 관련주들이  
투자자들을 찾아간다. 이들 종목은 미국  
발 경기 둔화 우려로 최근 주목받고 있

다.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KRX  
필수소비재지수는 지난 14일 증가 기준  
1187.62로 1년전보다 12.11% 상승했다.  
특히 농심은 NXT 주도로 거론된다.  
NH투자증권은 농심에 대해 "주요 제품  
들의 가격 인상이 진행된 만큼 올해 2분  
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9만원은 유지했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도 거래를  
시작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씨젠, 메디톡스,  
메지온, 차바이오텍, HK이노엔 등 바  
이오 업종이 눈길을 끈다. 기술 수출 및  
신약 개발 모멘텀이 기대돼서다. 이들  
기업에 포함된 KRX 헬스케어 지수는  
지난 14일 3907.15로 거래를 마쳤다. 지  
난해 대비 12.74%가량 오른 수치다.

코스닥 반도체 기업인 넥스틴, 원익  
IPS, 유진테크, 이녹스첨단소재, 테스  
등도 NXT시장에 등판한다. 이들은 인  
공지능(AI) 및 데이터센터 성장과 맞

물려 투자자들의 주목을 끌 전망이다.

증권가는 NXT가 무난히 안착했다  
는 평가와 함께 향후 성장 가능성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신민섭 DS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기업의 정규장 이후 공시로 인한 대체  
거래소 이용이 증가할 것"이라며 "시차  
가 있는 해외 종목과 연관성이 있는 종  
목에 대한 가격 반영 과정에서도 대체  
거래소에서 가격 반응이 나타날 확률  
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선집행의무에 따라 수수료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투자자 입  
장에서 대체거래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유인이 발생한다면 대체거래소 점유율  
이 증가할 여력이 크다"고 예상했다.

한편 NXT는 3단계 종목 추가일인  
24일부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코스피 200·코스닥 150 종목이  
추가되며, 총 350개 종목이 거래될 예  
정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정인교(오른쪽 2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자리한 미 무역대표부(USTR) 본부에서 제이미스 그리어 USTR 대표와 면담하고 있다. /산업부

## 관세면제·비차별대우 건의 美와 지속적 협의진행 합의

산업부, 워싱턴서 USTR 대표 만나  
트럼프 '관세 4배', 사실관계 설명

우리나라가 지난 주말 미국에 우리  
기업에 대한 관세 면제 또는 비차별적  
대우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미국 측은  
한국의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를 주  
문했다. 또 미국산 농식품에 대한 한국  
의 위생·검역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  
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인  
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스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  
TR) 대표와 만나 "상호관세를 비롯한  
미국의 무역 관련 제반 조치계획에 대  
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  
혔다. 또 "향후 관세·비관세 관련 협의  
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고 했다.

산업부는 특히, 오는 4월2일로 예정  
된 미국의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와 관련해 "(정 본부장이)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를 요청하고, 우리  
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대우  
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라고 전했다.

면담에서 우리 측은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을 통해 양국 간 관세가 실

질적으로 철폐된 상태임을 내세운 것  
으로 전해졌다.

정 본부장은 지난 주말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특파원간담회  
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관세뿐 아니라  
미 측이 문제 제기하는 우리의 비관세  
조치도 상당 수준으로 해소되거나 관  
리되고 있다. 또 양국 간 교역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돼 왔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정 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의 발언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지난 4  
일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 상·하  
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은 미국  
관세의 4배"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양측 인식차가 있  
는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  
명하고, 이를 근거로 상호관세가 고  
려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전  
했다.

이어 "미 측도 한미 FTA에 따라 양  
측 관세가 0%에 가까운 수준임을 인식  
하고 있었다"며 "포괄적 경제협력 틀로  
서의 한미 FTA의 유용성에 공감했다.  
관세 조치 등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지속  
해 합리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진전 방  
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관세전쟁 격화... 국제 금값 3000달러 돌파 (온스당)

美 금리인하 전망, 금값상승 부추겨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  
며 온스당 3000달러를 넘겼다. 트럼프 발  
(發) 관세 전쟁이 격화하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미국의 물가상승  
률도 예상을 밑달면서 미 연방준비제도  
(Fed·연준)가 금리 인하를 앞당길 수 있  
다는 분석이 금값 상승을 부추겼다.

16일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4월  
인도분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지난 14일  
온스(31.1g, 약 8.1돈)당 3001.10달러  
(약 435만원)에 장을 마쳤다. 전일보다  
9.80달러(0.33%) 오른 가격으로, 사상

최초로 3000달러를 넘겼다. 금 가격은  
이날까지 일 평균 0.87%의 상승을 기  
록하며 4일 연속 상승했다.

최근 금 가격이 연일 상승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  
세 전쟁'이 격화하고 있어서다. 대표적  
인 '안전자산'인 금은 미래에 대한 불확  
실성이 확산하면 가격이 상승한다.

트럼프는 지난 3일(현지시간) 캐나  
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유예 조치를  
중단하고, 모든 물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수출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동등  
한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 관세'도 오

는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들어 세계적  
인 관세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에는 자유무역협정(FT  
A) 대상국이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서 수입되는 수입품 대다수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5일에는 중국을  
대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한 가산 관세  
를 20%로 상향했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주도하는 고관세  
를 대표로 한 무역 분쟁으로 기존 세계질  
서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충격을  
경계하고 있다"라며 "금융시장 내 자산 가  
격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사전 위험 징후  
가 포착되는 점 또한 경기 우려를 자극하  
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경주**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중심,**

**SMR 국가산업단지에서 미래를 선도할 기업을 찾습니다!**

원자력 산업 생산·수출 플랫폼

**SMR**

Small Modular Reactor | 혁신원자력

**국가산업단지**

- 광역접근성 우수
- 원자력산업 핵심시설 집적
- SMR 소부장 제조업시설 조성



경주시